

박광온 신임 민주 원내대표 선출

‘민생·경제·민주’ 쟁기기 승부수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박광온은 원내대표 앞엔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민생 경쟁, 내년 총선에 대한 승리라는 과제가 놓였다.

우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차별화 전략에 기초한 원내 행보로 총선 승리를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여기에 대정부 전면 투쟁, 여야 대치 속에서 여려 민생 입법에 민주당 표 정책 내용을 관철시켜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 또한 새 원내 지도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 박 원내대표는 정경발표와 당선인사에서 ‘쇄신’, ‘통합’을 강조했다. 총선 전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언급했다.

동시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을 언급했다.

또 “민주당이 가치와 담대한 정 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민생, 대안 정당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무능, 무책임하는 목소리를 내고 주요 민생 분야에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이미지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다수 의석을 통해 여야 이견이 선명한 쟁점 법안을 강행 돌파하는 모습도 연출 중이다. 그 당위로는 민생, 경제, 민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대치 정국, 원내 교착 상황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는 박 원내대표 해법이

‘민주당 가치 확장, 보강’… 차별화 강조 여야 대치 정국 속 민생 입법 드라이브 곳곳 갈등 지점… 쌍특검 돌파 등에 관심

주목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관 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전세시기 관 련 특별법 등 대책 입법에서 박 원 내대표가 보일 역할과 역량이 눈길 을 끈다.

현재 민주당은 전세사기 사례를 주요 민생 시안으로 조명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등을 방향으로 하는 대책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대립이 침 예한 쟁점 법안 처리 또한 기깝게 마

주한 과제로 꼽힌다.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 또한 현실화 가능성 있는 과제로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 시도로 정국 을 풀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회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게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강조하 고 여당 층과 접촉해 나가겠다고 했 다.

선거 전엔 존중하며 소통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여당과의 골이 깊은 만

큼 협력으로 민생 성과를 이끌어 내 긴 쉽지 않을 것이다란 시선도 있다. 당분간 냉각, 교착 기류가 지배적일 수 있단 것이다.

여기에 대회와 타협이 들어갈 여 지는 점차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존 재한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당 전반으로 확산하는 사법 리스크가 운 신 폭을 출일 것이다란 시선도 있다.

실제 정기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외교안보 및 대통령실 관련 문제,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집 중조명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예 산 협상 또한 양당 기자회견 장면을 하는 장이 되면서 조기 타협이 이뤄지길 쉽지 않을 것이다란 견해가 있다.

여야 갈등은 연말께 도래할 수 있 는 대정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처리 과정 에선 정점에 달할 것이다란 평가도 존 재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쌍 특검 국면에서 보일 박 원내대표의 풀과 전략은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게 평 가된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해심 쟁 점에 대해 양보할 생각은 없다는 방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 민의힘을 향해 “독선과 독단 독주 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또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민주 당과도 협치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위기를 해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뉴스

민주, 지지율 37%… 5%p ↑

한국갤럽 여론조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탈당 영향’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내 흥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직전과 같은 3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달 25~27일 시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7%, 국민의힘은 32%, 정의당은 4%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은 27%로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이라 답한 이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19%, 민주당 42%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는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종양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시무처 직원,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빅데이터로 본 기업 발전방향 모색

도의회,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 개최

카카오 강성구 차장·사회적기업연구원 송영훈 소장 강연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달 2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 원과 시무처 직원,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 회원 플랫폼사업팀 강성구 차장은 강연을 통해 카카오의 사업 현황과 성장 과정을 소개한 뒤 빅데이터로 바이본 텍시대란의 해결 방안과 전 북의 키워드 분석 성장 가능성이 큰 IT산업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연구원 ESC 경영연구소 송영훈 소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모델을 만든 부산경 제 활성화 지원 기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빅데이터 혁신공유 대학사업단 안정용 단장은 빅데이터로 살펴본 도내 기업 현황 분석 자료를 분석한 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총 11건 안건 처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부터 진행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 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28일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운경) 9건, 안전기본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27일에 진행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는 김제시의회 전체의원과 함께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된 전두표 김제소방서장과 선행숙 한국국토정보

단 교민 수송기 입국 등의 급작한 사 건들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민주당은 직전보다 7%포인트 늘어난 33%, 국민의힘은 7%포인트 줄어든 28%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7%를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55%,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6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외 대전,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53%, 민주당 47%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4%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은 27%로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이라 답한 이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19%, 민주당 42%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는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종양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장, 전북도 방문
윤수봉 도의원, 원주 상관
마치 지방도 공사현장 방문

“침수문제 해소토록 배수로 개선 서둘러달라”

윤수봉 도의원, 원주 상관
마치 지방도 공사현장 방문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은 지난달 27일 원주 상관~마치 지방도 7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도로포장 상태와 우수관로 상황을 점검했다.

윤 의원이 방문한 현장은 원주군 상관면 마치리 용정 학교마을로, 이곳은 적은 비단 내려도 인접한 뒷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 지방도 721호선 우수관로가 넘쳐 도로가 침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윤 의원은 전북도, 원주군 현장대리인, 주민 등과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한 뒤 “지방도 721호선은 지방도 49호선(상관~소오)의 연결도로로써 도로가 좁은 관계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 불편과 침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배수로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전라북도 도로 공항철도과와 원주군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로 확포장하는 지방도 721호선 상관~마치 구간의 총 사업연장은 L=1.40km, 총사업비는 약 29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김재훈 기자

“5월 전북발전 모멘텀 활용”

김관영 지사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범도민 역량 결집”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5월에 개최되는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등 주요행사와 아전대에 접종해 전북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5월 3일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기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통 체계 구축 및 협력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인원 참여와 경기 진행, 홍보, 관광 활성화, 인파 사고 예방까지 대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새만금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 유치”
새민금 내해에 국산 해양장비 산업화 지원과 해양 무인 시스템의 객관적 시험평가 체계 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이 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제3·부안)은 해수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새 민국 내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에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공직자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전라북도 국내·외 글로벌 해양 장비 시스템의 메카로 자리 잡아 나가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